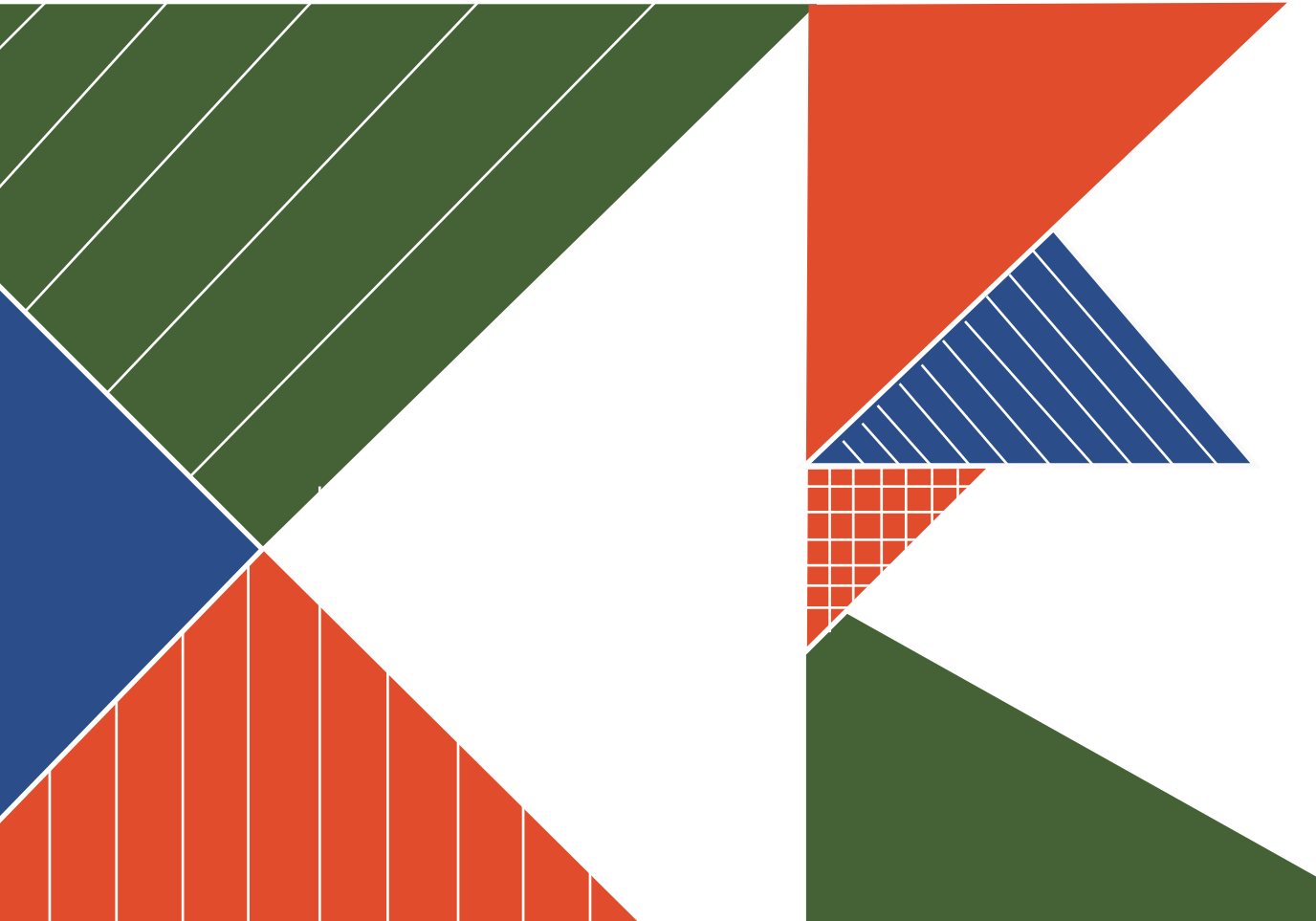


남산골 해방촌

3호
세번째 발간

겨울의 한량
이천십이년 십이월



순서

인사

2012년 아홉달간의 기록

이 달의 소동

이것이 궁금하다

독일 이주민의 이야기

사진

구석구석 심층 취재

동네 주민 릴레이 인터뷰

편집후기

늦었습니다	3
만나고 만나고 만나다	5
사연 있는 지도를 기획하다	7
카페 해방촌, 빈가게의 어느 저녁	13
All sorrows are less with bread 빵만 있으면 어지간한 슬픔은 견딜 수 있다	19
골목길	26
해방촌성당을 찾아서	32
백수?	35
한마디	39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잡지가 8월 24일에 발간되었으니까 거의 넉 달만이네요.

연말은 헐레벌떡 시간을 쫓다가 끝나버려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피곤이 잔뜩 엉겨 붙은 상태로
새해와 부끄러운 첫 만남을 가지기 일쑤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보내기 싫다고, 가지 말라 해도
어쨌든 시간은 갈 테고
1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십이년을 쿨하지 못하게
보내야겠죠.

저에게는 해방촌에서의 두 번째 겨울입니다.
작년엔 미처 몰랐는데 해방촌의 겨울은 어마어마해요.
집으로 가는 길에 45도쯤으로 꺾인 경사가 있는데
눈으로 덮인 그 길은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아, 결코 쉽지 않아요.
영등방아를 짊을 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요즘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미쳤어. 이걸 정말 말도 안 되는 날씨가.”
인 것 같아요.
그러다 며칠 내내 내린 눈을 보니 문득
이 잡지도 갑자기 온 겨울처럼
이렇다 할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들이닥쳐
할 말만 평평 쏟아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의당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밝히려 하는 건데
인사는 커녕 콧대 높게 팔짱만 끼고 있었어요.
이런 불친절한 잡지 같으니라고.

이제야
늦은 자기소개 합니다.

잡지는 언제 나오나요?

올해 봄부터 준비했던 잡지가 뜨거웠던 여름과 부쩍 짧아진 가을을 지나 3호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겨우 세 권 내놓고 설레발치는 것 같네요. 그래도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잡지 소식을 물어보시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다음 호는 언제 나오는지, 잘 보고 있다든지 하는 등의. 이런 잡지가 생겨 너무 좋다는 칭찬도 종종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건 앞에서 대놓고, 크게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정말로요) 아,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언제 나오느냐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하. 처음 일호를 내면서는 격월간으로 시작했는데 (변명이 아니라) 이게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 지금은 계간지로 변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3개월마다 한 호씩은 내자! 하고 있으니 내년의 봄여름 가을 겨울과 함께 찾아올 듯합니다.

어디에서 받아 볼 수 있나요?

보통 잡지가 나올 때마다 4곳의 시내버스정류장, 그리고 동네의 카페, 식당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배포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 보성여중 •고 2곳, 한신 APT, 남산 터널 3호 정류장, 카페 및 식당, 인디고, 열두 가지, 르 카페, 카페 제제, 마음 한 잎, 해크니, 라떼킹, 카페 해방촌, 꿈앤편, 남산꼭다점

따로 받아볼 수는 있나요?

어떻게, 저와 따로 약속을 잡으신다면 직접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개별주문, 개별배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으로는 위에 적어둔 배포처를 먼저 확인하시고, 자신이 자주 가는 곳이 적혀있지 않다면 아래의 메일로 알려주세요. ('우리 집 앞', 이런 센스 있는 장소는 거절합니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방촌에 머물고 있다면, 혹은 해방촌 살지 않아도 이 동네에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와우. 이미 모든 조건을 갖추셨네요. 아, 물론 이곳에 대한 애정(혹은 애증)은 단디 챙겨오셔야 합니다. 가는 사람은 붙잡아도 오는 사람은 안 막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지만 매 주 만나는 장소가 동네 근처라는 건 알아주세요! 회의가 매 주 있다고 하면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생산력이 매우 낮은 모임입니다. 동네 반상회 같은 느낌이라 모이면 끊임없는 지방방송과 잡담만 하다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편집 주간엔 모두가 저의 피 터지는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게 함정! 관심이 간다면 일단 몸만 챙겨 한 번 둘러주세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저번에 한 어르신께 잡지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없습니다 그런거 (운다). 만나는 곳도, 회의하는 공간도, 심지어 편집을 하는 장소도 따로 없는 유령 잡지사입니다. 저희끼리 알아서 '해방촌 잡지 모임'이라고 그럴싸한 호칭을 붙였지만, 사실은 잉여기질이 다분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말을 하려면 일단 그 전에 들어야 하겠죠. 아홉달의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 본 지금, 과연 잘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소개도 늦어서야 원. 위의 다섯가지 질문은 제가 틈틈히 들어왔던 것들입니다. 소개가 충분했나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날 시간은 충분할테니 우리 차차 알아가도록 합시다! 친절한 남산골 해방촌으로 기억해주세요. (제발) ●

글. 정해지(sonikul@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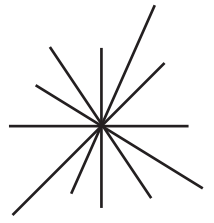
만나고 만나고 만나다







‘사연 있는 지도’를 기획하다



#1

야심 차게 준비한 대자보

2012년 가을, 해방촌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사를 한 번 써보겠다며 ‘동네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을 모아 몇 번의 회의를 한 후에, 해방촌 사람들의 사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만들고,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지도를 넣었다. 그리하여 11월 어느 저녁,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네 곳의 정류장에 대자보를 붙이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자~ 여러분도 자신이 꼬적었던 대자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그 결과를 드디어 공개합니다.

#2

두둥! 이번 대자보 망했다.

반응이 없었다기보다는 기획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결과 해방촌의 옛 추억을 발굴해보고자 시작한 일이었다. 사람들의 단골 가게와 초등학생 아이들의 이름(초등 학생들은 홍다훈네 집, 이웅준 집 계단, 박혁, 임재운 집에서 모인답니다. 하하.)만 잔뜩 알게되었다. 이 내용을 지도에 어떻게 담을지는 지도 제작팀의 새로운 과제가 된 셈이다. 설문지의 질문을 잘 만드는 것도 ‘기술’이라더니, 이거 쉽지 않다.

#3

해방촌 사람들의 단골_ 동네에 치킨 마니아가 있다.

11월에 붙였던 대자보의 반응은 내가 의도한 결과는 아니어도 나름의 성과들은 있었다. 해방촌 사람들의 단골 가게를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 흥미로웠던 내용은 ‘치킨 마니아’. 우리 동네에 미니스톱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치킨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쓰인 문구에 웃음이 터졌다. 평소에 편의점에서 치킨을 사 먹어 볼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 대자보를 신문고로 아셨는지 주민센터가 불친절하다는 의견을 써 주셨다. 공무원분들 분발하셔야 할 듯.

#4

우리는 무엇을 상상했는가?

사연 있는 지도가 어떤 모양의 지도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막연하게나마 각자가 좋아하는 해방촌의 장소, 특정 계절의 어떤 장면, 그리워지는 사람들과의 사연이 담겨 있는 지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요? 제가 뽑아본 장소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요즘은 노란 국화가 가득한 이웃 아줌마의 화단. 붉은 홍시가 가득한 감나무. 항상 개가 머리를 내밀고 있는 핑크 집. 커피가 맛있는 Le cafe, 소월길에서 보는 야경. 앞집의 옥상 텃밭, 동네친구랑 정처 없이 수다 떨며 걷는 좁은 골목길. 누군가가 그려 놓은 벽화, 하얏트까지 가는 길에 있는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들. 그리고 찜닭이 맛있는 마음 한 잎, 맥주가 맛있는 꿈앤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동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맞아, 맞아” 하고 맛장구 쳐주는 곳이지요.

누구나 좋아하는 장소는 비슷하긴 합니다

Q4 친구나 친척이 오면 자랑하는 해방촌의 장소는?
Where is your favorite space in HBC ?



The baker's table

꿈동산 - 고구마와 김치를 주는 가게에♡
사슴채르츠, 레민네이드 샷있다

자랑할 만한 곳, 자신만 아는 숨은 명소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인디고스파게타가 맛있음) baker's Table

플랑드르점 (가게, 플랑드르 피자점, yumyum!)

리탈치키

보쌈여 광고동행인

이 리탈치키의
한입만

애니야 수컷이
크크크

적다점 (맛있음)

골목골목점들 옥상정원등

Good day pub

Casablancas + piony mart

자코비버거 → 강남에 2호점 생겼음
"해방촌의 10경문"

복수 선택
물랐던 가게와 정가 많았습니다

(multip
's, we write
독리 데니담치킨은 이번 생애 봐야겠어

천지걸네 보일
좋이두더

퍼 앤디고 치킨점

세탁소
laundry

엔 라일가게

미맛나(오)

남산
운동하는곳

남산플레이라운드 cafe

나방산간

데니스점
Nam mountain
playground

남산공원, 흥다훈네, 용산동 2가 주민센터 지하 발스

가치

관티링
림지커피
etc

계단, 남산차운 김옥상

나방산간

계단 cafe
치킨점
디에스파게샤음

만라방

모듬복자

음양독서실

이음준집 계단

남산서라

→ 한림가!!!

지하도서관

해방촌 상당

일방리

응답해주신 세군데의 대자보의 답변을 모았습니다.
최대한 그대로 적으려고 노력했고, 어린이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나뻐말을 걸렸습니다.

#5

기획자의 '사연 있는 장소들'

한신 아파트 버스정류장

어느 해, 1월 첫 출근날. 그날, 서울엔 눈이 펄펄 왔다. 해방촌 언덕을 슬금슬금 걸어서 한신아파트 버스 정류장까지 갔지만 20분을 기다려도, 30분을 기다려도 버스는 오질 않았다. 버스가 남산 경사를 못 올라오는 것이다. 신발은 이미 젖었고 발도 꽁꽁 얼었다. 마음만 먹었으면 녹사평역으로 가서 여러 번 지하철을 갈아타고 늦게나마 출근을 할 수 있었지만, 과감히 회사로 전화를 돌렸다.

“천재지변으로 해방촌이 고립됐어요!!”

나에게겐 명백한 천재지변이었지만 그날 회사에, 그것도 시무식 첫날부터 결근한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었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폭설로 움푹달라지듯 못하게 되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날을 기억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새벽 3시의 남산 등산길

외국에서 몇 주 지내다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던 날. 시차 때문에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오질 않아서 괴로워하다가, “에이, 그냥 운동이나 하러 가자” 하고 새벽 3시에 오르기 시작한 남산. 새벽이라고 해도 너~ 무 이른 새벽이라, 달도 없고, 가로등도 꺼진 남산 등산길을 더듬더듬 올라갔던 기억이 난다. 씩씩하게 정상까지 올라갔으나 정작 사람 하나 없는 그 곳에서, 달리 할 일이라고는 맑은 새벽공기를 마시는 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심겁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등산길 입구에 구름같이 물러든 사람들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해! 남산등산길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구내! 여러분 남산은 너무 일찍 오르면 좀 무서워요~

카페12가지, 해방촌 특산물

특별히 챙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 카페 열두 가지. 어디에서도 먹어 보지 못한 달콤한 과일 차들이 즐비하다. 고향 집에 내려가기 전, 사과 계피차 향아리 하나를 사서 동생에게 선물했다. “이거 해방촌 특산물. 사과는 다른 곳에서 키웠지만 어쨌든 우리 동네에서만 파는 거야~ 맛있지?” 말하며 어깨가 으쓱한다.

Le cafe

요즘은 해방촌 구석구석에 작은 카페들이 들어서 있지만 4~5년 전엔 지금과 많이 달랐다. 커피 한잔이 마시고 싶으면 삼십분을 걸어서 주한미군부대 입구에 있는 스타벅스까지 가야 했었다. 그때 정말 커피가 먹고 싶었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도 카페가 생겼다! 지금은 나의 아지트가 되었지만, 처음의 나는 그 곳 앞에서 기웃기웃 거리기만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수개월이 걸린 듯 하다.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슈퍼

해방촌에 산 지 4년이 되었을 때까지도 동네에 말을 트거나 인사하고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동네는 너무 좋은데 아는 사람 하나 없어 서글썸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차에 외국에 나갈 일이 생겼고, 6개월 정도 뒤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간만에 우리슈퍼에 들러서 이것저것 생필품을 고르고 계산대에 섰더니 아주머니께서 “오랜만이시네요 이사 가신 줄 알았어요.”라고 말을 건네시는 게 아닌가. 나를 알아봐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에 느낀 감동! 요즘도 여전히 눈인사만 하는 사이지만, 여름이 되면 내가 수박 킬러라는 것, 가을이 되면 홍시 킬러라는 것을 슈퍼 아주머니는 아신다.

여러분, 이런 자신의 사연 있는 장소 어디 없나요?



해방촌 언덕들~ 겨울엔 눈 와서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못해서 간혀 있었음.
→ 그래도 50년 살았다우~ 공기짱~ 경치짱~

#6

다시 한번, 어떤 방법으로? 왜 만드나?

한 번 망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새로운 대자보가 붙는다면 각자 사연 있는 장소를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지도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달리 그래픽 전공자도 아니기에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하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며 두리뭉실하게 생각할 뿐이에요. 최소한의 진행 일정과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연 모으기

그동안 잡지 만들면서 취재된 사연들 (예전에 남대문시장으로 가던 버스의 종점 이었던 종점 약국, 쫓느기 팔던 할머니가 있던 골다리 앞, 미군 부대가 훤히 보이는 경로당과 독서실 등)을 표현하고, 새로 붙일 대자보를 통해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가 있는 장소를 모은다. 또 해방촌 구석구석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특징 있는 곳(모빌이 있는 집, 패종시계들이 붙어 있는 집, 길 앞 화분이 예쁜 집 등)을 표시한다.

지도 그리기

사연들을 반영한 그림을 그린다. 여기에 참여할 사람은 우선 필자와, 주위에 그림 좀 그린다는 친구들을 모아 작업한다. 이 작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나 환영한다. (wookybiny@hanmail.net) 지도 그리기 모임은 토요일 오전에 비정기적으로 모인다.

반응 받기

일차적인 지도의 틀이 완성되면 대자보의 형식으로 지도를 선보이고 사연들을 더 모은다. 그래서 매번 잡지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덧붙인다.

배포

다음 호(아마도 2013년 봄호?) 남산골 해방촌 잡지에 부록으로 배포한다. 혹은 그냥 가지고 있다. 만들어 팔겠다든지 혹은 해방촌을 알리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있다. 이 지도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해방촌 곳곳에 대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매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동네 밖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글. 배영욱(wookybiny@hanmail.net)

지도 제작. 유인희, 배영욱, 김세운



카페 해방촌, 빈가게의 어느 저녁



* 이곳의 정식 이름은 <카페 해방촌>
이지만 흔히 <빈가게>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명칭을 혼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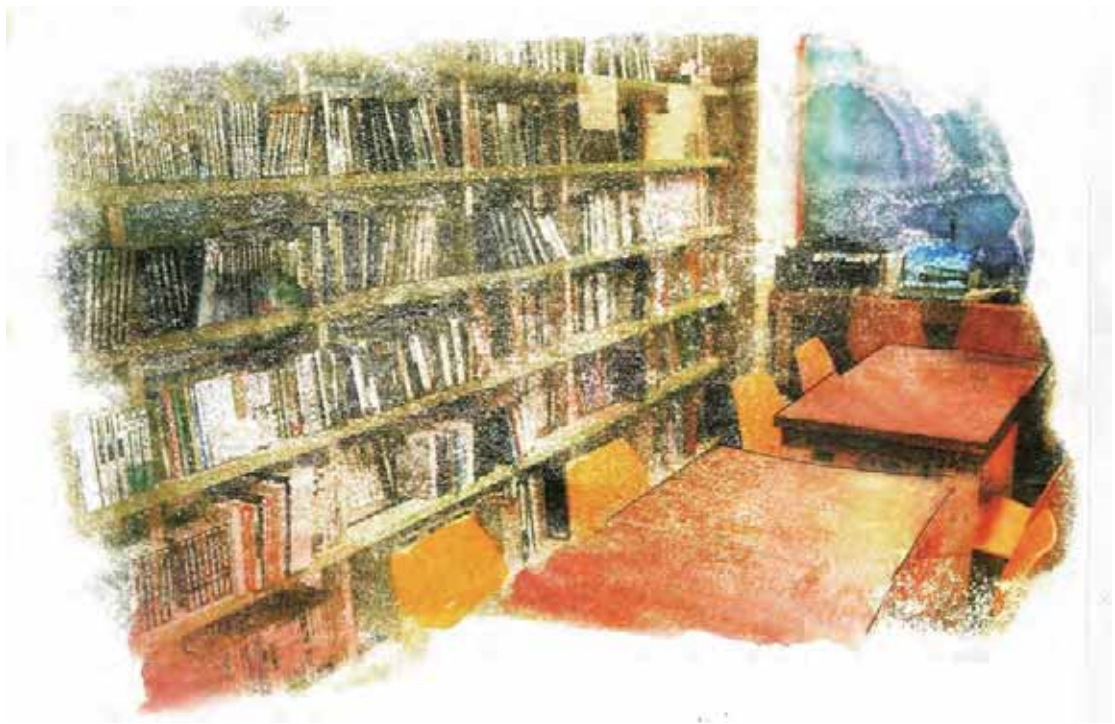
2012년 11월 16일 오후 9시 2분,
<카페 해방촌>에는 네 무리의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가장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이들은 오늘의 카페 마스터(지킴이)인 두
사람입니다. 아마 그다음은 다락방의
오른쪽 편에서 정신없이 만화책을 읽고
있는 초등학생 형제일 테죠. 거기에 동네
잡지 기사의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내보고자 빈가게를 찾은 저와 주섬주섬
모여든 책 읽기 모임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간에 한데 모여
각자의 할 일을 하며 시간을 즐기고
있네요.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거나
그들에게 말을 건네거나 하진 않아요. 마치
한동네에 살면서도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이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
는 무슨 관계든 하나쯤은 맺고 있기도
하지요. 오늘 카페 해방촌에서의 인연을
통하여, 빈가게와 해방촌의 함께 살아가기
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카페 해방촌 협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마스터 오디 씨와 우더 씨를 포함하여 이 카페의 주인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협동조합은 뭐고,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궁금하시죠? 한국에서는 아직 협동조합이 많지 않아 낯설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썬키스트, 웰치스, FC바르셀로나, AP통신, 서울우유 등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축구 구단인 FC바르셀로나의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의 로고를 붙이기 마련이지만 FC바르셀로나는 2006년부터 5년 동안 선수복 앞쪽에, 지금은 뒤쪽에 유니세프(UN 아동기금)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익금 일부를 유니세프에 기부하기도 하는데요. 대체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일까요? 그 비밀의 답은 FC바르셀로나가 바로 구단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 되고 운영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구단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 조합을 만들고 구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팬들이 FC바르셀로나를 ‘클럽 그 이상의 클럽’이라고 자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정리하자면 협동조합이란 쉽게 말해 어떠한 조직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 만족을 얻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페 해방촌의 예를 들어볼까요? 카페 해방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출자금을 내고 카페의 주인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 회사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투자한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카페 해방촌은 조합에 가입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똑같이 존중 합니다. 돈을 버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함께 하는 생활과 각종 문화생활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이지요. 덧붙이자면 협동조합으로서의 빈가게는 해방촌과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우시다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카페 해방촌은 조합원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원하지만 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이번엔 카페 다락방 아래로 눈을 돌려 봅시다. 만화책을 재밌게 보고 있는 두 형제와는 후암초등학교 동문이네요. 아직 낯설어 그런지 대뜸 말을 걸어오는 저를 ‘이상한 아줌마네?’ 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카페 해방촌이 아니었다면 벌써 15년은 족히 차이가 나는 초등학교 후배님들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길에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몇 마디 말을 건네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카페 해방촌은 바로 이러한 곳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점교회 근처에 있던 가게를 해방촌의 중심부로 옮겨오기도 했다는군요. 하지만 아직은 눈에 띄일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고 있는 듯합니다.

카페 앞에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 보았습니다. 대체로 호기심 담긴 눈빛으로 카페를 지나쳐 가시더라고요. 그간 카페 해방촌에 갈 때마다, 정작 해방촌에서 빈가게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마침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부모님께서 해방촌 오거리 근처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잠시 가서 인사를 드리고 평소 빈가게에 대해 가지고 있으신 생각을 여쭙보았습니다. “평소에 동네에 카페가 하나쯤 생겼으면 했는데 반가웠지. 하지만 웬지 젊은 애들끼리만 모여 뭘 하는 것 같아서 들어가기 어렵더라고. 바느질 모임도 있다고 하는데 관심이 많거든. 하지만 나는 너무 나이가 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동네 엄마들도 쉽게 가질 못해. 게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카페 분위기는 아니거든. 술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노는 곳으로 보이기도 하고, 들어가도 이렇게 반겨주거나 하는 게 별로 없어.”



평소 여러분께서 카페 해방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비슷하시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도 쉽지가 않네요. 지금은 분명 청년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처음 참여하는 이들에게 매우 친절할 곳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 저녁을 카페 해방촌에서 보내며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빈가게란 녀석은 낮을 좀 가리기는 하지만 일단 친해지기 시작하면 참 편하고 믿음만한 친구예요. 단순히 돈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곳이 아니라, 함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해방촌에 살게 된 지 고작 1년도 되지 않은 카페 해방촌, 수줍어서 아직은 제대로 다가서질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사랑방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셋 동아리, 공부, 놀이의 공간, 카페 해방촌

한편 카페 한가운데에서 강독 모임 중인 사람들이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고 있는 책은 제 전공인 사회학 서적이네요. 오랜만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사회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만히 앉아 기사를 쓰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용에 흥미가 생겨갑니다.

카페 해방촌에는 바느질, 언어 공부, 책읽기, 운동, 농사, 요리 등 다양한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기타를 배우는 시간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구성원들이 각자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제안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게 유리창에 붙어있는 공지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카페 마스터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되겠네요.

책장과 다락의 보 앞에는 해방촌의 여러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있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 길을 지나시는 어르신, 도로변에 놓인 화분들까지 해방촌의 곳곳을 기록하고 있네요. 창 밖에는 사진과 함께 그림들도 있어요. 일명 ‘해방촌 미술관’ 이랍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을 우리 동네의 모습을 이렇게 남겨두려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여서 사진을 배우며 기록하고 있다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넷 마을 구판장, 카페 해방촌

마지막으로 출입문 옆을 볼까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물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감자라면’, ‘우리 밀 국수’, ‘유기농 과자’, ‘(환경을 보호하는) 생협 푸른 물 비누’ 등이 있네요. 이름만 봐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자연과 좀 더 가까이 머무는 생필품들을 이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산골 해방촌> 1호의 교열을 맡아주었던 언니가 카페 조합원으로서 물건을 사려고 잠깐 들렀다 갔어요. 평소 아이들 간식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은 물건 구경하러 놀러 오셔도 좋겠습니다.

만약 카페 해방촌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직거래, 공동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이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길이 열리게 될 테죠. 진정한 소셜커머스(인터넷에서 개인적인 친교를 맺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일종)란 협동조합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동네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낯설고 어색했던 카페 해방촌. 하지만 제가 어느 저녁, 여기서 만났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처럼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과 카페 해방촌의 인연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은 해방촌 주민으로서도, 협동조합 카페로서도 걸음마 단계인 빈가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기사를 통해 <카페 해방촌, 빈가게>와 해방촌이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글. 이한솔(roodbeam@gmail.com)
그림. 홍동규(kei_kun@hanmail.net)



The baker's table

“ALL SORROWS ARE LESS WITH BREAD”

Life of a German migrant
in Haebangchon

I was born in 1973 in what was then called West-Berlin. If one told the story of my family, one would learn about some of the key events in Germany history that is, in some respects, so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and not only because of the divisions caused by the Cold War. Koreans nowadays come to terms with the difficult history of collaborator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and Germany once faced a similar problem, too, since many of those in power in Nazi German remained powerful long after World War II had ended. The failure to remove them was one of the reasons for the protest movement of 1968.

Although my immediate family lived in West-Berlin, many of our relatives lived on the other side of the German Wall in East Germany. We visited them several times each year and sent letters and presents something unimaginable for families divided by the 38th parallel. While many political activists lived in West-Berlin, my parents were not the radical type. But their political views and ethics were tangible, be it in their support for the antinuclear movement, the progressive Green party, or their strong stance against weapons and violence. My first hand experience of the division and the Cold War was one of the reasons why I first got interested in Korea in the late 1990s, when the Korean Wave wasn't even a storm in a teacup.

I first came to Korea in 2002, and ever since, I have spent four years here, during which I attended university, first as an exchange and later as a graduate student, and travelled to as many places as I could afford to. Finally, I returned to Korea to conduct independent research, a concept that tends to puzzle Koreans. But before I talk about my work, I will write about Haebangchon and what I love about this peculiar little neighbourhood.

When I first moved to HBC, it was for the same reason why others move here: I needed to find some cheap accommodation. My girlfriend Chaerin reminded me of a “leftist commune” she had told me about several months prior. If you live in HBC, you probably know who I am talking about: the Binjip community. I had contacted them before in English and hadn't heard back from them. Now we contacted them in Korean and this time managed to arrange a meeting at the Bin Gagae, which back then was located further down the road from the Haebangchon Eogeoru where it is now.

I can speak Korean but my vocabulary is limited, and Chaerin says that the way I speak is either soft like a Teddy bear or blaring like a North Korean news anchor. So you can imagine that I am often too shy to speak Korean when I meet new people. The Binjip folks showed us around and not much later, I moved into one of their apartments and lived there for the next 3 months. I was the only one who wasn't Korean and it was the first time for me to live in a community exclusively made up of Koreans. Looking back, I would call it an interesting experience. I am grateful that I was allowed to live as an alien in a Korean community; at the same time, I would be lying if I said it wasn't problematic, too.

Living in foreign countries, as I have for the past eleven years, is always a challenge. In my opinion, you just have to accept and get used to most things that bother you. I love Korea and I think I will never get bored of learning new things about this unique place. However, the one aspect that I will never get used to, simply because I don't want to, is the system of hierarchy in Korean society. It is a burden to everyone, yet it seems that some are all too ready to use it for their own advantage when the opportunity presents itself. That is what made me sad sometimes in Korea – and the Binjip community was no exception in this respect. I could see, however, that some were making a real effort to build a good community, and being a part of it, for however short, has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me.

Towards the end of my time there, I asked if we could allow some Couch-Surfers to stay at our apartment. CouchSurfing is a global network connecting travellers and locals to offer each other help and accommodation free of charge. The others agreed and thus, for a short time, our apartment became a hot spot for foreign culture. A British man from Hong Kong played piano for four hands with one of my Korean flat mates, a German girl made vegan cupcakes for everyone, and a Swiss guy played chess with me.

For this short time, our apartment was a multicultural microcosm in the heart of Seoul. Yet, when the contract for our apartment ended, most of us were blown into different directions. By this time, I had decided to stay in HBC, and I was lucky to find a cheap room close to Boseong Girls' Middle and High School. My second HBC apartment I shared with a Nigerian man my age. We got along alright, but living in a dark basement wasn't all that easy and I often needed to escape to a coffee shop to work from there, and so, Café Jeje became my office. I felt a little guilty because up until then, I had often visited Gam Café further up the hill, a tiny, but lovely café owned and run by Kumi Lee that doubles as her office.

Having moved downhill from where I lived before, I began to notice the different halves of Haebangchon. While the upper half seems mostly populated by Koreans, the lower half seems dominated by foreign residents, though actually, both live alongside each other. The moment I thought I saw the two worlds collide was when a graffiti that I had been so happy to see suddenly was defaced. The graffiti was a fine piece of advocacy for people to accept families of all shapes and sizes – traditional ones, single parents, or gay parents. But someone made sure everyone in HBC knew he or she disagreed, and judging from his or her 'work', it was a Christian fundamentalist. (Fundamentalists are never very enjoyable, no matter what religion they claim to follow.)

I had taken a photo of the unspoilt graffiti before the smear campaign began. Now I started to take photos whenever someone had repaired the graffiti or freshly attacked it, until finally, two Korean lesbians, as I was to learn later, painted the wall white “to erase the hate”, as they claimed. In my view, they made a big mistake. Yes, homophobia is hatred and hating others for their sexual orientation is despicable. But the graffiti had become a public discourse and a daily reminder to everyone who passed by that these two forces, the progressive and the regressive, are constantly struggling with one another, and certainly not only in South Korea.

I published my photos on my blog and soon, an editor of Groove Korea contacted me to ask if I knew the artist who had created the graffiti. I didn't, but I promised her I would try to find out more. And so, I put up some posters in Haebangchon, one of which you might still be able to see in the door of Gam Café. I never managed to locate the actual artist of the graffiti but learnt that she was Korean. I did get in touch with another artist, however, who had created the graffiti “Foreigner Xing” (Foreigner Crossing) right next to it, and from him, I learnt about the two women who had painted the entire wall white. I also got to know a Korean blogger who had taken photos of the graffiti as it became a battleground of opinions, and finally, an editor of this magazine contacted me and so we met at Café Jeje. For this issue, the HBC team thought about including an article from me, but when they contacted me, they learnt I had already left Korea. I was so glad, however, that they considered including me in their community, so I agreed without a second thought to write an article about my life in Haebangchon.

Before I moved to HBC, I had already lived 3½ years in South Korea, so I was hardly a newcomer. But living there was different. Whereas before, I felt like an alien, in Haebangchon, I began to feel like a part of Korean society. Before, I mainly knew university students and professors, but now I was getting to know locals. It made me feel less like a visitor and more like a citizen in Korea. I am the kind of person that likes to get to know the locals. It's so much nicer to live in a neighbourhood where you know some of the owners of the local businesses or people who like the same coffee shop as you.

One of my favourite spots became The Baker's Table, a German bakery and deli right at the border between HBC and Gyeongnidan, only a minute away from the wall that once bore the graffiti. I was often surprised when I learnt about Koreans who tried little or no foreign food while being abroad. Having lived most of my life in multicultural environments, it was unfathomable for me when I once met an ajjuma on the plane who was returning from Africa but had only eaten Korean food there. I have to admit, however, that, just as Koreans cannot really do without the food they are accustomed to, German bread became part of my regular diet and cheered me up when life was tough sometimes. Because it is true what the baker once wrote on the wall of his bakery while I was there: “All sorrows are less with bread.”

My article should finish here, but I wrote before that I would tell you about my work. My research is about the Anti-Sex Trade Law and the effect it has on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in South Korea. I know that Koreans often feel uncomfortable talking about sexual matters in public. But I also know that Koreans care a great deal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 are people who live in your neighbourhoods who don't have the same rights as you. They are marginalised by laws and stigmatised by society, and the bias of the Korean media and the public constantly adds to their discrimination. They have the courage to demonstrate for their rights, but your government, when it reviewed the law, decided to make matters even worse for them, rather than learning from countries like New Zealand, Australia, the Netherlands or Germany, where governments understood that criminalising sex work, contrary to what anti-prostitution activists will tell you, harms sex workers and their families and does not reduce human trafficking. Even the UN has finally understood this and published a report this September that calls for the decriminalisation of sex work. You can find out more about this topic on my blog. There's some information available in Korean, too. I like to end here by asking you a question.

If I, a migrant, can feel like a part of Korean society, how can it be that there are Koreans who don't feel like they are part of society?●



Matthias Lehmann

www.researchprojectkorea.wordpress.com,

www.facebook.com/research.project.korea

<http://twitter.com/photogroffee>

번역본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빵만 있으면 어지간한 슬픔은 견딜 수 있다.” -세르반테스

〈어느 독일 이주자의 해방촌에서의 삶〉

나는 1973년 일명 ‘서베를린’이라고 부르던 곳에서 태어났다. 독일 역사의 큰 사건들은, 어떤 면에서는 (단지 냉전에 의한 분단국가라는 점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은 역사적으로 친일파라는 난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독일도 한때 나치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 나치 청산의 실패는 1968년 저항운동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우리 가족은 서독에 살았지만, 많은 친척은 장벽 저편의 동독에 살고 있었다. 우린 매년 그들을 방문했고 편지와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서독엔 정치 활동가들이 많았다. 나의 부모님은 급진적인 분들이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관점이나 도덕적 기준은 분명했다. 핵발전소 반대운동과 진보적 성향의 녹색당을 지지하고 폭력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다. 이러한 냉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내가 1990년대 말,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다. 한류는 커녕 찻잔 속의 태풍조차 일지 않았던 그때 말이다.

내가 한국에 처음 온 것은 2002년이었다. 그 뒤로 4년을 한국에 있으면서 교환 학생으로, 나중엔 대학원생으로 공부했고, 형편이 닿는 대로 많은 곳을 여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기회가 생겨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내가 사랑하는 작고 독특한 이웃, ‘해방촌’에 대해 먼저 쓰고 싶다.

해방촌에 살기로 한 이유는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집세가 좀 더 싼 곳을 찾아왔던 것이다. 내 여자친구인 채린은 몇 달 전 언급했던 ‘진보 성향의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떠올려줬다. 만약 당신이 해방촌에 살고 있다면 이곳이 ‘빈집’이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전에 영어로 문의했을 땐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지만, 이번엔 한국어로 연락해 빈가게(현 카페 해방촌)에서 만나게 되었다.

빈집 사람들은 우리를 안내해 주었고, 나는 머잖아 그 중 한 곳으로 이사하여 3달을 살았다. 나는 빈집의 유일한 외국인이었고, 내게는 완전히 한국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사는 것이 처음이었다. 돌아보면 흥미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이방인이었지만 한국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어 기뻐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지난 11년간,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도전이었다. 내 생각에 그건,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그저 받아들이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다. 나는 한국을 사랑하며 내가 이 독특한 나라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데에 지루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 내가 결코 익숙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로 한국사회의 ‘위계질서’다. 사실 이러한 문화는 모두에게 짐이지만, 어떤 이들은 기회만 있다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위계질서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 보인다. 이 점은 종종 나를 슬프게 했으며, 그런 면에선 빈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나는 좋은 모임을 만들고, 그것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노력을 보았으나, 결국 거기에 더는 머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빈집에서의 생활을 마치며, 나는 그들에게 ‘카우치 서퍼(Couch Surfer)’들이 집에 머물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다. 카우치 서퍼이란 여행자들과 지역주민을 연결하여 서로에게 무료 숙박을 제공하며 톱도록 하는 국제적 연결망이다. 구성원들은 여기에 동의했고, 빈집은 곧 외국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한 영국인은 홍콩에서 왔는데 내 한국인 룸메이트와 연탄곡을 연주했고, 독일인 아가씨는 모두를 위해 채식 컵케이크를 만들었으며, 스위스 친구는 나와 체스를 즐겼다. 그때만큼은 우리 집이 서울의 중심에서 만나는 다문화의 축소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파트 계약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 다른 길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이때까지 나는 해방촌에 계속 머물기로 했고, 운이 좋게도 보성여중고 근처에서 싼 방을 구할 수 있었다. 해방촌에서의 두번째 집에서 나는 동갑인 나이지리아 친구와 집을 함께 썼다. 다른 건 괜찮았는데, 캄캄한 지하에서 온종일을 보내기는 쉽지 않아서 나는 종종 커피숍으로 도망쳐 거기서 일을 했다. 카페 제제(Cafe Jeje)는 나의 사무실이 되었다. 사실 그전까진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작고 사랑스러운 ‘감 카페(Gam Cafe)’에 종종 갔었기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살던 곳에서 좀 더 아래로 이사 오니 해방촌의 또 다른 반쪽이 보이기 시작했다. 윗동네는 대부분 한국인이었는데, 아래엔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어울려 살았다. 내가 두 세계의 충돌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은, 좋아하던 그라피티(벽에 그린 그림, 낙서)가 갑자기 훼손된 것을 보았던 때다. 그 그라피티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내용이었는데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 한부모 가정, 동성애자 가정 등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반대 의견을 알아줬으면 했던 것 같다. 결과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아마도 기독교 근본주의자일 것이다. (근본주의자들은 종교를 막론하고 절대 유희한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훼손되기 전 그라피티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누군가 벽화를 보수하고 다시 공격하는 과정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다. 결국엔 한국인 레즈비언 두 사람이 벽을 흰색으로 칠했는데 “증오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실 내가 보기엔 큰 실수다. 그렇다, 동성애혐오는 중이며 성적인 취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아비한 행동이다. 그러나 그라피티는 공론의 장이었다. 또한, 매일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 ‘진보’와 ‘퇴행’이라는 두 가지 힘의 끊임없는 투쟁을 떠올려 주었다.

내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얼마잖아 ‘그루브 코리아(Groove Korea)’라는 잡지사에서 그라피티 작가를 아느냐며 연락을 해왔다. 나는 몰랐지만 더 알아보겠다고 대답했고, 해방촌 곳곳에 벽보를 붙였다. 작가는 찾지 못했지만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원래의 그라피티 바로 옆에 있었던 “외국인 건널목(Foreigner Xing/Foreigner Crossing)” 그라피티의 작가를 만날 수 있었으며, 벽을 어떻게 칠해버린 두 여성에 대해서도 들었다.

이 일에 대해, <남산골해방촌>팀은 기사를 쓰고 싶었는지 나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난 이미 한국을 떠나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팀의 일원으로 생각해주었다는 점에 기뻐하며, 무말하지 않고 ‘해방촌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고 의뢰를 받아들였다.

해방촌으로 오기 전, 이미 3년 반을 한국에서 살았으니 사실 완전히 처음 온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방촌에서 사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다른 곳에선 이방인이었지만, 해방촌에서는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전에는 주로 대학생이나 교수들만 알았던 데 비해, 이제는 지역주민도 만나게 되었다. 이는 내가 단지 방문자이기보다는 한국의 시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나는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길 좋아하는 사람이다. 집 근처 가게의 사장님들이나 같은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것은 훨씬 멋진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는 독일식 빵집인 “더 베이커스 테이블(The Baker’s Table)”인데, 해방촌과 경리단 사이에 있으며 앞서 언급한 그라피티 벽에서 몇 분 걸리지 않는다. 나는 외국에 체류하면서도 그 나라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거나, 거의 먹지 않았다는 한국인들에 대해 듣고는 깜짝 놀랐다. 비행기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아프리카에서 지내는 동안 한국 음식만을 먹었다고 했다. 인생 대부분을 다문화 환경에서 살아온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익숙한 음식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건 한국인만은 아니라는 점을 고백한다. 독일 빵은 내 식사의 일부가 되었고, 때때로 삶이 힘들 때 나를 응원해 주었다. 그 빵집의 주인이 벽에 썼던 말대로다. “빵만 있으면 어지간한 슬픔을 견딜 수 있다.”

기사는 여기서 끝나야 하겠지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나의 연구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다. 내 연구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성매매 금지법)과 그것이 한국의 성 노동자들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물론 한국인들은 공공연하게 성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 또한 안다. 당신의 이웃이 당신과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법에서 배제되었고, 사회로부터 낙인 찍혔으며, 한국 언론은 지속해서 그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 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용기를 얻었으나, 한국정부는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의 예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재검토하여 오히려 그들에게 더 나쁜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이들 국가는 성 매매 반대론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성 매매 불법화가 성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고, 인신매매를 줄이지도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제연합(UN)도 마침내 이 점을 인지하고 “성노동의 합법화”라는 주제로 지난 9월에 보고서를 냈다.

만약 이 주제에 관해 관심이 있다면, 한국어로 된 정보도 있으니 나의 블로그를 방문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나와 같은 이주자도 한국사회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인이면서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일까?●

마티어스 레먼(Matthias Lehmann)은 1973년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현재는 고향에서 성노동자의 인권과 성매매법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www.researchprojectkorea.wordpress.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research.project.korea

트위터

<http://twitter.com/photogroffee>

블로그

www.mattlemmonphotography.wordpress.com

번역, 정해지, 이한솔

사진, 마티아스 레먼



An HBC dog



Berlin Bear graffiti



Hot Dog Eating Contest



HBC Window



Piano Duet

골목길

이천십이년
십일월 이십구일
오후 세시 십사분부터
12/11/29 15.14

십일월 이십구일
다섯시 이십 사분 까지
만남 골목길의 모습.
- 17.24

사진.
정해지
(sonikul@naver.com)

매일 보고 걷는 못난 길에
특별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만은,
삐뚤삐뚤 시간이 쌓이고
덧붙여진 골목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반갑다.
이 날, 오후에 내가 만난 길은
떨어지는 빛의 조각을 조용히,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16,03



16,11

17,03





36







15,27



15,28



해방촌성당을 찾아서

*이번 호의 객원기자로 글을 써주신 이상행 씨는 천주교 신자이며 현재 건축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후암동의 주민이다.

해방촌성당을 찾아가는 길은 초행인 사람에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간혹 들르는 나조차도 행로는 여전히 눈에 익지 않다. 멀리서 보아도 눈에 띄지 않는 산등성이에 있긴 하지만, 다른 건물에 묻혀 구별되지 않을뿐더러 큰길에서도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해방촌 성당으로 가는 길은 '해방촌 오거리'에서부터 그려 본다. 오거리엔 신호등도 없지만, 사람과 자동차가 눈치껏 어울려 잘도 소통된다. 길을 건너는 사람은 걸논질로 차를 살피거나 애써 외면하고 운전자들은 조심조심 지나간다. 사람이 우선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 좋다. 오거리에서 남쪽 방향 길을 바라 보면 해방예배당의 첨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해방촌성당을 처음 찾는 사람이라면 교회 건물을 성당으로 착각할 법도 하다. 몇몇 여학생들이 늦은 등굣길을 서두르는 뒤를 따라 걸음을 재촉해 본다. 해방 예배당을 지나쳐 눈부신 아침 햇빛을 만끽하며 구부러진 길에 들어서면 먼발치로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아치와 흰색 벽면 그리고 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천주교 신자에게엔 눈에 익은 성체 형상의 성당표지판과 보성여중고의 녹색표지판이 그것이다. 그곳이 성당임을 이제 겨우 알겠다. 물론 초행자에게는 아직도 불확실한 정보이겠지만.

1954년 당시 후암동성당 관할에 속해 있던 해방촌, 이태원, 삼각지 등의 지역신자들이 새로운 본당 설립을 추진하였다. 1955년 50여 평 규모의 목조건물을 지어 시작된 해방촌성당은 지역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고향을 등지고 남하한 소위 월남살항민들 대부분이 서울로 유입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정상적인 주거를 마련할 재산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의 도심과는 가까우나 당시 녹지, 공지로 남아 있었던 남산기슭으로 모여들었다. 이것이 해방촌의 시작이며 지명의 유래다. 지금의 행정지명은 용산2가동이나 해방촌성당은 지역민이 흔히 쓰는 지명인 해방촌을 그대로 쓰고 있다. 성당 설립 당시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노후한 건물 탓에 여전히 걱정이 많다는 성당 사무장의 설명을 듣고 성당을 둘러보니 과연 그렇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당은 본래 낡은 목조건물을 1969년에 철거하고 온갖 어려움 끝에 122평에 이르는 현대식 건물로 다시 지었다. 그 후 1984년에 증축하여 현재의 모습과 시설을 갖추었다. 건물을 둘러보면서 형태에 대하여 무언가 건축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해방촌본당 50년사>에 의하면 성당건축 추진 당시 신자의 집에 기거하던 건축과 학생이 연습 삼아 그려 놓은 설계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설계도가 남아 있지 않아 알 수가 없으니 어떤 건물을 모델로 하였는지 궁금해진다.

성당에 들어서면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듯 성모의 기도상이 반기고, 그 앞에는 목재가 깔린 바닥 위로 멋진 의자가 세 개 놓여 있다. 성모동산 옆에는 특별히 눈길을 끄는 이담한 철골조 종탑이 있고 성탄카드에나 나올법한 멋진 동종이 매달려 있었다. 이 종은 신자 중의 한 사람인 조동환 씨가 모친의 회갑기념으로 기증한 것이라 한다. 본래 동종은 첨탑지붕을 가진 종탑에서 인근 지역에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려주었고, 1987년 6월 항쟁 때에는 타종시위에도 사용되었다. 이후 지금의 종탑으로 이설되었고, 현재는 소음을 이유로 종을 치지 않는다고 한다.

해방촌 성당의 동종





해방촌성당 건물의 변천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현재) 까지 시간순

성전 안으로 들어서니 마침 아침 햇살이 제대(가톨릭, '제단(祭壇)의 전 용어)까지 깊숙이 비추고 있다. 성전 내부는 후암동 성당 성전을 축소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아마도 신축 당시 후암동 성당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다시 밖으로 나와 성당 외부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해방촌성당의 외부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는 지붕의 모양에 있다. 건물 측면에는 아치 4개가 연속되어 지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아치의 중심부로부터 퍼져 나가는 방사형의 창살이 중세의 스테인드글라스 창을 연상시킨다.

건물의 앞쪽에는 간단한 갤러리창을 두른 아담한 종탑이 설치되어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성당의 정면에서 양쪽 모서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상이 숨바꼭질하듯 서 있다. 왼편은 예수상, 오른편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 요셉상인데 증축 당시 다른 곳으로부터 옮겨 설치 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촌성당을 '예쁘고 특이하다' 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 때문일 것이다.

자리를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방촌성당에 서서 주위를 둘러본다. 다른 건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이곳이지만, 여기서는 후암동이나 보광동 등 주변지역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비록 해방촌성당이 소박하고 접근성이나 인지성은 떨어지지만 해방촌 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안식처임을 알겠다. ●

글. 이상행(thozi@naver.com)
 사진 자료. 이상행

백수?

점심시간이 막 지날 무렵 터덜터덜 슬리퍼를 끄는 소리와 함께 한쪽으로 눌린 머리를 대충 손으로 넘기며 편의점으로 담배를 사러 걸어가는데 이 남자. 이걸 영락없는 백수다. 하지만 해방촌에서는 다르다? 한심하게 쳐다보는 당신의 눈빛에 당장 에라도 달려와 "저도 세금 내고 사는 어엿한 작가라고요!"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젊은 예술가들을 이끄는 해방촌의 매력, 그들은 왜 해방촌으로 오는 걸까?

편의점을 나와 능숙한 손길로 담배를 꺼내주는 이 남자는 필자가 대전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만화가 오동진. 서울로 왔다길래 밥이나 먹을까 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새로 동지를 튼 곳이 해방촌? 신기한 인연이다. 평소 해방촌에 젊은 작가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그들의 속내가 궁금하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동진

만화가, 일러스트작가

1982년생 대전출신.

현재 해방촌 거주 중

주요작품, yahoo에서 연재되었던 드림캐처

질문자: 박기덕(이하 박)_ 프리랜서라는 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를 덜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작가들도 지방에서 서울로 많이 올라오나?

답변자: 오동진(이하 오)_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최근에 페이스북(Facebook)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달했다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가까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전시모임을 한다고 할 때, "그럼 우리 모여서 뭔가 해봐요."가 결국에는 "서울에서 해봐요."가 되죠. 그래서 결국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서울로 올라오니까 담당자들도 가까워서 자주 만나게 되고 '내가 진짜로 일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회적인 위치랄까, 우리 일이 소속감을 느끼기 쉽지 않은 직업이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박_ 서울로 올라올 때, 해방촌으로 오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는지?

오_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은 있었죠, 아는 사람들 소개로 해방촌에 오긴 했는데, 여긴 뭔가 공기가 달라요. 기존에 서울에 대한 이미지,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어릴 때부터 살아온 우리 동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_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생활해보니 어떤 점이 재밌었는지?

오_ 저는 오히려 여기 와서 친구들한테 귀농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대전에 있을 때는 빌라에서 생활했거든요. 처음 살았던 집에 베란다가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남산에서 흙 퍼다가 텃밭 만들고, 상추나 이것저것 키우다 보니 친구들이 그런 소릴 하더라고요. 근데 해방촌이 정말 신기한 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집 앞에 뭔가를 키우는 거예요. 뭐 자랑이라도 하듯이 키우는 걸 보니까 은근 경쟁의식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더 잘 키우겠어!' 이런 느낌 하하하. 나중에는 거름사고 배양토도 사고.

전 사실 환경이 사람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달라진 점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는 것. 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드는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했어요. 남산도 가깝고 한강도 멀지 않아서, 등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뭔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가깝게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로 이사 오고 남산타워를 처음 가봤는데 그때는 한 번 올라가면 죽을 것 같더니 지금은 뛰어서 올라간다니까요. 하하하. 그리고 산책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재밌는 곳도 많아요. 인류평화연구소도 그렇고 남대문시장 방향으로 소월길 따라 내려가다 보면 늘지 않는 연구를 하는 연구소도 있고, 거기서 노화방지비누 팔고 그러던데, 알아요?

실제로 주위에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깔끔한 집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막상 우리 집에 와보면 집 앞에 남산 올라가는 길이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축복이라고 해요.

박_ 처음에는 남산타워 올라갈 때 죽을 거 같다는 점, 너무 공감이 가네요. 그럼 처음에는 금전적인 문제나 친구들 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와서 지내다 보니 '아, 오길 잘했다' 이렇게 된 건지?

오_ 유도신문 같은데요 하하. 그냥 냄새가 좋았어요. 어릴 때 살던 동네 같은 느낌. 도시 속에 시골 냄새.



어서와! (남산 도서관 앞 후암동 90계단)



그녀의 노랑 도서관 (남산 도서관 앞 버스정류장)

박 그런 동네 정서가 일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오 제가 연재를 할 때는 치열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 말 연재를 끝내고 내내 만화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후로는 그냥 그림 좋아하니까 일러스트 하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가 참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남산 도서관에서 책 빌려 보면서, 노란 버스 왔다갔다하는 것, 높은 계단 길 같은 동네 풍경 그리고.. 사실 되게 힘든 시기였거든요, 직업을 바꿀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었어요. 직업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만화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권유도 많이 하고 있어서, 열의가 회복되면 저도 다시 해볼 요량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일러스트 일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하고 있어요.

고민 많던 시기에, 생각은 정리하는 데 동네 분위기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일전에 좋아하던 선생님께서 “사람은 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에 산만큼 좋은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남산 근처에 살다 보니 여름에는 흐르는 개울을, 가을에는 나뭇잎 색깔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계절마다 가치 있는 변화가 있다는 게 실감이 나죠, 그걸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그는 아마도 이곳 해방촌에서 재충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듯하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야기 내내 해방촌에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게 느껴진다. 그가 발견한 해방촌의 매력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건 해방촌이란 동네가 얼마나 작고 비밀스러운 매력을 품고 있는지,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소중한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그동안 너무 시야가 좁아진 것은 아닐까?

해방촌에서 사계절을 보내면서 자주 가는 카페에 앉아 사장님과 얘기하는 것도, 동네 아주머니들과 친분을 쌓는 것도, 해방촌의 느릿느릿한 시간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다는 작가 오동진. 예술가의 시선에는 그들만이 볼 수 있는 어떤 풍경이 있는 걸까? 그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단지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만이 아닌 해방촌에는 그들을 이끄는 특별한 매력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다.


글. 박기덕(hiro0020@naver.com)

일러스트, 오동진

Matthias Lehmann

December 17th was the international day to end violence against sex workers. I hope my friends who are sex workers in South Korea will continue to fight for their rights in 2013 and I hope that more people will accept that sex work is work and that sex workers deserve the same rights as you and I.

If there is a chance, I would love to write for this magazine again and I hope I will visit Haebangchon again soon. 'Frohes Neues Jahr!' for all of you. (That is 'Happy New Year' in German.)




이상행

떨아이의 등하곶길, 출퇴근길, 근대건축 답사, 골목길탐사, 남산 산책,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미사참례를 위하여 해방촌성당에 가면서 해방촌의 골목길은 내게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 골목길 정점에 있는 해방촌성당은 명칭 그대로 해방된 공간의 느낌을 주는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이른 아침부터 카메라를 들고 설치는 나에게 커피를 권하며 해방촌성당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놓았던 사무장님의 편안한 느낌 또한 그렇다. 현 주임신부님 이신 이영우 토마스 신부님이 슬프고도 외로운 영혼들의 해방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듯 해방촌 남산골의 영원한 해방구가 되기를 기도하는 답사였음을 떠올리며.



박기덕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시간이 1년 남았다는 뉴스가 흘러나온다면, 1년짜리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매년 지켜지지 않는 신년 계획을 정리하는 것도 연말 술자리를 갖는 좋은 핑계가 되는구나.



홍동규

올해 12월 24일이면 '지구별 남산골 해방촌'에 눌러 온 지 2년이 된다. 남산골 해방촌 여행을 하며,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서 네 번째 꿈의 시작인 동화작가 공모전에서 당당히 대상을 타고 동화작가가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곳에서 조금씩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꿈을 이루는 지구별 삶이 아직은 즐겁다. 앞으로 새로운 그림책 출판을 꿈꾸며 남산골 해방촌 잡지도 오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배영욱

저에겐 7번째 해방촌의 겨울이지만 동네 친구들과 잡지를 만들면서 맞는 이번 겨울은 지난 6번과 느낌이 다릅니다. 가보지 못한 후암동 언덕도 내려가 보고, 친구들과 함께 연말 파티를 기획하며 설레기도 합니다. 그간 인세를 지원해 주신 해안건축에 감사드립니다. 또 잡지만드는 동네친구들의 밥값을 제공해 주신 서울연구원에도, 내년엔 어떻게 인세를 할 수 있을진 아직 모호합니다만, 잘되겠지요.

2013년에 뵈요!

고현

새로 이사 온 집이 외풍이 심해 발이 시렵네요. 알록달록한 수면 양말 하나 마련해야겠어요. 남산 칼바람에 추운 겨울 몸 건강하세요~.

이한솔

1998년 겨울, 중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 해방촌을 올랐고 이후 6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외엔 해방촌의 언덕을 마주할 일이 없었죠. 경사도가 만만찮아 큰 맘 먹고 놀러 가는 동네였어요.

2012년 봄, 드디어 다시 해방촌과 친해질 이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남산골 해방촌> 이죠. 덕분에 동네 친구가 여럿 생겼고 길 하나, 나무 한 그루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아요. 어느덧 해방촌의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을 봅니다. 내년의 풍경들도 담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비를 해야겠지요. 이제는 우리 동네 해방촌, 2013년에도 함께할게요!

임시원

굉장했던 2012,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엔 해방촌이...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생긴 진짜 동네 친구들, 내 사랑 소월길, 골목골목 왠지 내게 인사 거는 것 같은 모든 생명들, 사물들. 깨알 같은 행복감을 심어주며, 많은 것을 재발견하게 해 준 이 곳, 우리 동네 해방촌, 고마워! 모두 따뜻하고 포근한 연말연시 되기를요. Joy to the world.. Joy to 해방촌의 우리들.

정해지

On your mark, Get set and go
끝이 없는 겨울 얼어붙은 서울
올려다 본 하늘 온통 너란 그늘
애써 버터보는 지옥 같은 일본
버릴 수도 없는 기억만 한 가득
깨져버린 겨울 기울어진 저울
부서진 그 얼굴 위로 떨군 눈물
번져가는 하늘 추락하는 노을
다신 오지 않을 아름다운 날들
- 넬 <Go>

남산골 해방촌
#3

발행일.
2012년 12월 22일

발행인.
배영욱

책임 편집 및 디자인.
정해지

참여.
고헌, 김세윤, 박기덕, 배영욱,
유인희, 이한솔, 이상행, 임시원,
정해지, 홍동규, 마티아스 레먼

후원.
서울연구원, 해안건축

